

'홍길동' 바바리에 중절모 파격적 변신

조성희 감독 두번째 영화 고전소설 속 이야기 서구적 비주얼로 버무려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이하 탐정 홍길동)은 '늑대소년'으로 성공적인 장편영화 데뷔전을 치른 조성희 감독의 두 번째 영화다.

송중기를 스타덤에 올린 늑대소년(2012)은 서양의 늑대인간 전설에 한국적 정서를 가미, 판타지 동화처럼 풀어내 무려 700만 관객을 모았다.

이번에는 한국의 고전소설 속 홍길동 이야기를 서구적 비주얼로 버무렸다.

바바리에 중절모를 걸친 홍길동은 할리우드 고전 누아르 영화 속 탐정이나 영사를 연상시킨다.

빛과 그림자, 안개들을 과감히 사용, 장르적 특성을 더했다. 시공간을 지은 독특한 공간 연출도 시선을 끈다. 불법 흥신소 활빈당 여관인 보성장 자동차 정비소, 숲 속의 폐가 등 영화 속 모든 세트는 우리가 흔히 바운 기존의 공간 이미지와 다르다. 감독 스스로 "리얼리티보다는 표현주의적으로 연출했다"고 밝혔다.

플롯이나 내러티브 위주의 고전적인 스토리텔링보다는 파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미장센에 공을 들인다.

장르와 시대가 불분명한 스토리와 비주얼이 낯설면서도 새롭다. 동시에 전작과 다른 듯 공통된 영화적 정서로 '조성희 월드'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흥행을 위한 기획영화가 아닌 작가로서 감독의 개성이 드러나는 영화 작품이라는 점이 반갑다.

탐정 홍길동에서 불법 흥신소 활빈당의 수장이자 사립탐정인 홍길동(이재훈)은 어릴 적 트라우마로 악몽에 시달리는 민사가 귀찮은 인물이다.

단, 세상의 쓰레기를 처리할 때만 눈이 번쩍인다. 의적은 의적인데 성격만 보면 의적과 거리가 멀다. 대단한 신념도 정의도 없고 약자를 향한 연민도 없어 보인다.

어릴 적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홍길동이 어머니를 죽인 원수 김병덕(박

근형)을 찾아 복수하려는 순간, 김병덕이 두 어린 손주만 남겨둔 채 의문의 조직에 납치당한다. 복수에 이용하려고 동(노정의)과 말순(김하나) 자매를 데리고 김병덕을 추적하던 중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직면한다.

극 초반 이 낯선 영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어두운 색조의 화면과 홍길동의 고백적 내레이션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두 소녀의 등장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영화에 빛과 웃음을 더한다. 두 아이는 예상대로 냉소적인 홍길동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아이답게 돌직구를 날리는 말순의 맹렬한 연기에 홍길동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다 쓰러진다. 동생을 보살피느라 애어른이 된 동이가 안쓰러움을 자아낸다면, 코를 질질 흘리는 연기초보 김하나이 이 영화의 주인공을 홍길동이 아닌 동이와 말순 자매로 뒤흔어 버린다.

응답하라! 시리즈로 스타덤에 오른 김성균을 비롯해 박근형, 정성화, 고아라 등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기존 영화 속 모습과 다른 점도 볼거리다.

특히 김성균이 오랜만에 상대를 오싹하게 만드는 악역 연기로 영화 속 박진감 넘치는 액션신을 책임진다.

고아라는 짧은 출연분이 아쉽다. 활빈 재단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소유주로 그녀가 아니면 정의구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한바디로 막강한 돈줄이다.

'늑대소년'도 그랬지만 이야기 자체는 대중적이면서 전형적이다.

파격적 캐릭터로 이야기를 비틀었지만 기본 구조는 악당을 처단하는 히어로 이야기다. 홍길동이 겪은 과거 트라우마도 대단히 새로울 건 없다. 탐정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추리하는 재미가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할리우드 히어로무비 중 영웅의 활약상이 히트하면 캐릭터 소스에 해당되는 프리퀄 오리지널 영화의 전사(前作)를 다른 작품) 영화가 만들어진다. 이 영화가 딱 '탐정 홍길동'을 소개하는 프리퀄 영화가 가깝다. 홍길동의 화려한 활약상보다 그를 알아가는 과정에 방점이 찍혔다.

/정해은기자

강릉 빙상장 2곳 올림픽 이후에도 철거 안하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철거될 예정이던 강릉하키센터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대회 이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정부는 지난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허물기로 한 강릉 하키센터와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등 2개 신설 경기장을 남겨두기로 했다.

다만 이들 경기장이 국가나 지방 재정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비를 줄이고 수요를 창출하는 등 사후 활용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들 경기장을 올림픽 이후 활용할 방안이 없다고 보고 대회 이후 철거하기로 강원도·조직위원회측과 합의한 바 있다.

경기장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지만, 이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자 경기장을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가 철거 방안을 포기한 것은 대명 그룹이 지난달 강원도와 강릉하키센터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들 경기장을 활용할 방안이 가시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강릉에는 강릉하키센터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 등 국제규격을 갖춘 빙상경기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토티엄 알리, 경기중 폭력으로 시즌 조기 마감

손흥민(23)과 함께 토티엄 핫스파에서 활약 중인 델리 알리가 경기 중 폭력을 행사한 일로 시즌을 조기 마감하게 됐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지난 29일(한국시간) "알리는 심판이 보지 못하는 사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지만 영상 분석을 통해 이것이 드러났다"며 "델리 알리는 3경기 동안 출전할 수 없다. 효과는 즉시 발휘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알리는 올 시즌 남은 경기에 더 이상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세 경기 남아있어 징계가 끝되면 시즌도 끝이 난다.

사건은 지난 28일 토티엄과 웨스트 브로머지 알비온의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에서 발생했다.

알리는 전반 26분 상대 페널티박스 안으로 뛰어드는 과정에서 자신을 막은 수비수 클라우디오 아롭의 복부를 가격했다. 하지만 주심은 이를 보지 못했고 반칙 선언도 되지 않았다. 경기는 1-1로 마쳤지만 알리의 행동은 논란을 빚었다.

결국 FA는 경기 영상 분석을 통해 알리에게 3경기 출전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알리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으나, 징계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3경기 출전정지가 확정됐다. 잘나간 알리는 한 번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시즌을 마치게 됐다.

/김민근 기자

홈멜스, 도르트문트 떠날듯

"리그 라이벌 뮌헨에서 다음 시즌 보내길 원해"

도르트문트 수비의 핵인 마츠 홈멜스(28)가 친정팀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29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홈멜스가 올 여름 구단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리그 라이벌인 뮌헨에서 다음 시즌을 보내길 원한다"고 밝혔다.

도르트문트 이사회는 홈멜스의 가치에 걸맞는 제안이 오면 이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뮌헨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홈멜스의 의지가 강해 구단은 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홈멜스는 독일 국가대표로 A매치 46경기를 치른 중앙 수비수다. 지난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도 출전해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홈멜스는 뮌헨 유스팀 출신이다. 2007

년 5월 뮌헨과 마인츠의 2006~2007시즌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했다. 그러나 뮌헨에서는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1월까지 단 1경기에 출전하는데 그쳤고, 임대선수 신분으로 도르트문트로 이적했다.

도르트문트에서 기량을 꽃피웠다. 점차 출전 시간을 늘린 그는 2009년 2월 완전 이적했다. 팀의 확고한 주전으로 활약하며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친정팀을 향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향이자 가족들이 살고 있는 뮌헨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결국 이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도르트문트와 뮌헨은 수년간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다툰 라이벌이다.



홈멜스는 독일 국가대표로 A매치 46경기를 치른 중앙 수비수다. 지난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도 출전해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 역시 뮌헨이 26승3무2패(승점 81)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도르트문트가 23승5무3패(승점 74)로 2위다. /김민근기자

지리산권 7개 시·군 씨름대회 내달 14일 개최

제 86회 춘향제(5.13. ~ 5.16.)를 맞아 '제 31회 재경남원향 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2016년 남원시 씨름왕 선발대회'와 '제1회 지리산권 7개 시·군 씨름대회'가 오는 5월 14일에서 5월 15일까지 춘향문화예술화관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그간 교류할 기회가 없던 지리산권 중심의 7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지리산권 7개 시·군 씨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우리 겨레의 얼이자 민족의 혼이며, 기쁠 때는 흥을 더해주고 힘들 때는 마음을 달래주는 가장 친근하고 역사가 있는 여가 문화로서 선수와 구경꾼이 하나가 되어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하는 묘미를 가진 스포츠로 지리산권 7개 시·군을 하나로 엮는데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